

화폐 사용처 한정·전국 70여곳 경쟁...실효성 의문

광주시·전남도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달까

지역 자본유출 문제가 지자체의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도입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행 쫓아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허접투성이 지역화폐 추진=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간부회의에서 “광주의 돈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도 광주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의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역외로 유출되는 돈이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화폐 추진을 구제화 했다.

이에 광주시는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만들어 광주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주은행을 운영 대행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사랑 카드상품권 운영 기본계획’ (2018년 10월 15일)을 수립한지 2달여 만에 운영대행사 협약(계약)을 체결(12월 17일)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한 톨도 책정하지 않은 채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 카드발급비 등은 금융기관 자체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지역화폐는 대형백화점, 기업형 SSM, 대형마트 등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지역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한 종합토론회는 단 30분만에 끝을 내는 등 ‘지역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기(민중남구2) 광주시의원=“남구청에서도 과거 전통시장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잘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으로 한정돼 있고, 실적을 위해 대부분 공무원들이 발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지역 화폐 붕괴, 실효성 평가는 엇갈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고향 사랑 상품권’ 등으로 불리며 각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70여 곳에 이른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강원도가 2017년 처음 시작한 지난해 발행액이 830억원까지 늘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가칭 ‘광주사랑 상품권’을, 전남도는 ‘전남 새천년 상품권’이라는 이름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중이다.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지금껏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 추진한 곳

광주시 관련 예산 한푼 없이 주먹구구식 증후적 사업 추진 소비자·가맹점 관심 미지수 5~10% 할인액 지자체 부담

은 기초단체 단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도 앞다퉈 지역화폐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해 그 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통 지역화폐는 5~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유통을 권장하게 되는데, 할인율 만큼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모바일 프로그램 확산에 드는 비용, 가맹점 모집에 필요한 노력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비용이다. 전남의 경우 상품권 액면가액의 5%를 할인 발행하고 할인된 금액은 전남도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연간 2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대략 100억원을 전남도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 모집 등 속제도=광역자치단체가 가맹점을 단시간에 대량 모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을 위해 도입, 이달부터 전남도에서 시행되는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도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각종 ‘페이’ 시스템이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페이를 비롯해, 최근에는 QR코드 방식을 활용한 카카오페이, 그리고 각 은행별 각종 페이 시스템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각종 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앞세워 경쟁에 뛰어들면서 ‘제로페이’와 지역화폐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제로페이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맹점의 입장에서 두 곳의 결제 시스템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든 하나의 모바일 결제수단을 휴대전화에 더 추가해야 한다. 더구나 제로페이의 경우 인터넷으로만 가입 가능한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가맹을 위한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대로 정착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N15 전문 랩 메이커스 스페이스에서 열린 ‘2019 제조창업 파트너스데이’ 행사에 참석해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메이커와 제조 스타트업 병행하는 회사를 격려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연초부터 두드러진 경제 행보...기업현장 방문·기업인 잇단 만남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수제화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가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또 1월 중순께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방상회화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 형식으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신년회에서 대통령이 한 말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성격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타운홀 미팅 형식이라고 한 것은 좀 더 격의 없이 자유롭게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편하고 진솔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초청했다. 이달 중순 대기업 인사들과 만남에서는 삼성·현대기아차·LG·SK·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초청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

원장이 지난 연말 삼성·SK·LG의 총괄부회장들과 비공개로 회동한 데 이어 이날 김 실장과 김 부의장이 기업인과 만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사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수리됐다. 김 대변인은 이날 “김 부의장의 사표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관광 인프라 확충 1180억 투입...전남도 ‘관광객 6000만명 시대’ 앞당긴다

관광자원 개발·숙박시설 등

올 7개 분야 135개사업 추진

전남도는 국내외 방문객 6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118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관광지 개발과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농수산관광자원 개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광 안내체계 구축,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 135개 사업이다.

분야별로, 관광지는 구례 지리산 온천관광지개발 등 4개 지구에 29억 원을 들여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여수 조·명(朝·明) 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 22억 원,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28억 원, 정유재란 전적지 평화공원 조성 18억 원 등 73개 사업에 864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의 뛰어난 친환경 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생태농수산관광자원 개발의 경우 한평 용천사권 관광개발 33억

원,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 17억 원, 구례 간문천 수달생태탐방로 조성 15억 원, 장성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13억 원 등 18개 사업에 154억 원을 들여 사업이 추진된다.

2017년 완공돼 좋은 평가를 받아 탐방객이 크게 늘고 있는 ‘남도 명품길’ 조성 사업을 확대해 담양호 산막이길 등 3곳에 29억 원, 목포 고하도 해식애 해안길 조성 26억 원 등 14개 걷기 여행길 조성 사업에 107억 원을 투자한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21개 사업에 8억90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

개 사업에 14억 원,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구축을 위해 해안대저류양시설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남 오시야노관광단지에는 12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빌라 등 국민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1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건축설계를 진행한다.

진도 대명리조트관광단지는 1단계로 6월에 콘도와 호텔 등 576실을 준공, 운영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